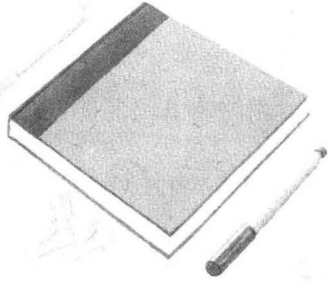


## 숨은 그림 속에 가족에 숨겨두는 고릴라 아빠



분명히 문을 잠겼는데도 두세 번 다시 확인을 합니다. 식당에서는 늘 자신이 사용하던 포크와 접시만을 사용하고 거리를 걸을 땐 보도블록 선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주인공 잭 니콜슨은 이처럼 괴팍한 성격에 강박장애까지 있는 남자입니다. 감독은 그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강박장애를 치유하고 사회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지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축구 선수 윌리>를 펼쳐보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책에는 잭 니콜슨을 쑥 빼닮은 주인공이 등장하더군요. 주인공은 셔츠의 제일 윗단추까지 채우고 보도블록의 금은 절대 밟지 않으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똑같은 순서의 일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확히 4분간 양치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친구. 작가는 아름다운 것, 정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어린이책의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강박장애가 있고 소심한 성격의 윌리가 숨겨진 자신감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판타지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분명 윌리를 닮은 심약한(비단 어린이들만은 아니겠죠)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편 앤서니 브라운은 가정과 아이에게 소홀한 부모님들에게 반성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고릴라를 보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이야기를 담은 <고릴라>를 읽은 한 독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도 아이와 자주 같이 있어 주질 못하는데, 괜히 마음이 씩씩해지네요”라는 감상을 인터넷 서점에 올려놓았던군요.

이쯤 되니 앤서니 브라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배가 됩니다. 1946년생이니 올해로 58세가 되겠군요. 그는 영국 셰필드의 마을에서 선술집을 경영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해서는 그림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일을 했지요. 리즈 칼리즈 오브 야츠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이후 3년 동안 맨체스터 왕립병원에서 의학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고 모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15년 동안 연하장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림책과 연을 맺게 된 것은 1983년입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에 그림책 작업을 하게 된 앤서니 브라운은 <고릴라>를 첫 책으로 줄곧 독특한 형식의 그림책을 내놓습니다.





1983년 《고릴라》로 영국도서관협회에서 그 해 최고의 그림책에 주는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과 '커트 매실러상' 을 받았고, 1992년에 《동물원》으로 두 번째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앨범을 펼쳐봅니다.

그의 그림책이 갖는 독특함 중 하나는 고릴라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화 <킹콩>을 본 이후로 고릴라를 그리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릴라를 닮은 나의 아버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닌 점잖고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아버지를 회상한 걸 봐서 그림책으로나마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를 꿈꿨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축구 선수 윌리》의 ‘윌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면서도 점잖은 자기 세계를 구축한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해 그려본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앤서니 브라운이 그린 고릴라는 귀엽고 예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멍니다. 오히려 언뜻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이 많지요. 그는 특유의 세밀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세밀화라고 해서 그림 전체가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고 또 보면 그림 안에 숨은 또 다른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림 안에 판타지적 요소들을 가득 채워놓은 까닭입니다. 가령 《돼지책》에선 무표정한 엄마, 엄마에게 업혀 있는 아빠, 아빠에게 업혀 있는 아이들을 배경으로 벽지가 붙어 있습니다. 벽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지들이 보이지요.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돼지가 됩니다. 최근 출간된 《행복한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한 관계에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미술관을 찾은 아이는 그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을 발견하면서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렇듯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웬만한 소설책을 읽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읽어야 합니다. 숨은그림찾기를 해가듯 그림들을 찾고 이해하는 시간만도 결코 만만치 않게 소요되거든요.

고릴라와 세밀화, 숨은그림찾기 기법, 독특한 그림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책은 주로 가정문제와 심약한 주인공 내면의 문제 등에 관심을 둡니다. 가족간의 대화단절부터 이혼, 형제간의 다툼 등이 그것입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와 문제들을 정확히 꿰뚫어보다가 결론에 이르러 따뜻한 시선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말미에서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타인과의 관계회복 등 다양한 치유를 경험하지요. 현존하는 인물이기에 여전히 변화할 그의 작품활동을 한 마디로 규정짓긴 힘드나 지금까지의 앤서니 브라운은 이런 시선으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공감도 사고, 그들을 고개 숙이게도 하다가 한편으론 따스한 미소를 짓게 만들어 주었던 작가입니다. **주필**

**01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장은수 옮김 | 비룡소 | 32쪽 | 값 7,500원  
고릴라가 너무도 좋아 고릴라 책도 읽고, 비디오도 보고, 그림도 그리는 아이. 아이는 실제로 고릴라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바빠서 이유로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무심한 아빠들도 함께 봐야 할 책. 곳곳에 숨은 고릴라를 찾는 재미도 선사합니다.

**02 《터널》**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장미란 옮김 | 논장 | 26쪽 | 값 8,000원  
책과 공상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여동생과 활동적인 오빠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집 밖으로 내쫓긴 두 남매가 터널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티격태격 다투긴 하지만 나를 위해 물어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03 《숲 속으로》**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허은미 옮김 | 베틀북 | 32쪽 | 값 9,000원  
무시무시한 소리에 잠을 깬 주인공. 아마도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집 나간 아빠를 찾아나선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결국 숲속에서 ‘책과 공나무’의 책, ‘곰발머리와 곰 새마리’의 곰발머리 등을 만난 주인공은 할머니 집에서 아빠도 만나게 됩니다.

**04 《윌리와 악당 벌렁코》**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허은미 옮김 | 웅진닷컴 | 32쪽 | 값 7,500원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여자친구와 산책하는 건 좋아하지만 축구, 자전거 경주 등 활동적인 것에는 자신이 없는 윌리는 친구들에게 놀림거리. 나약한 윌리가 자신을 놀려대는 벌렁코를 아주 황당한 방법으로 혼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심약한 어린이들에게 권해보세요.